

소득양극화의 개념 및 양극화 실태

2010.11.03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양극화의 개념
3. 소득분포로 살펴본 양극화 실태
4. 소득양극화의 원인
5. 글을 마치며



<http://saesayon.org>

요약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문제와 함께 소득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산층 붕괴라는 말과 함께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양극화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 심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생활양식, 생활수준의 차이로, 의식주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건강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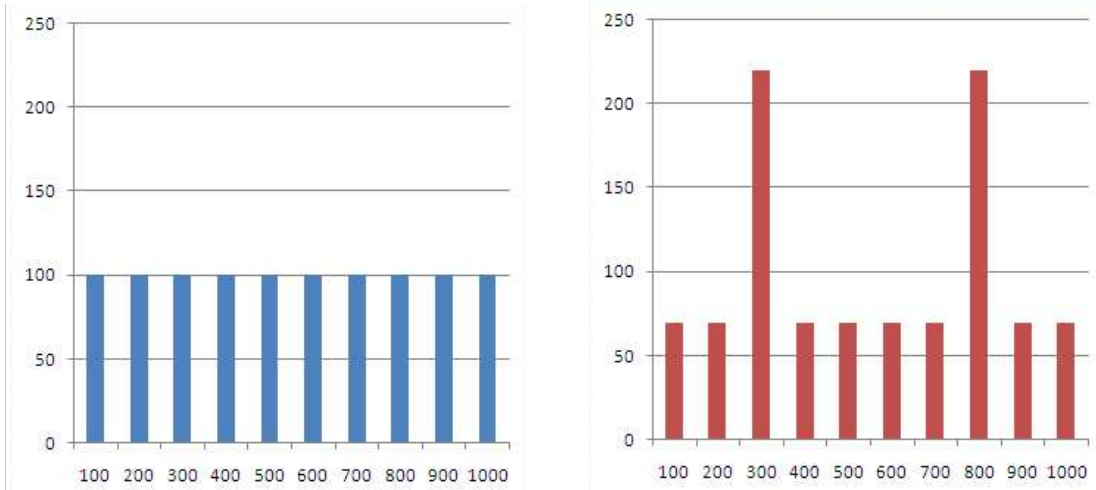
나아가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소득양극화가 아이들의 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가장 낮은 축에 드는 관악·구로·금천구에 있는 초·중·고교의 장래직업 희망을 비교하고 있는데, 초·중·고교 모두에서 강남 3구 학생들이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의 양극화, 소득양극화가 아이들의 꿈의 양극화까지도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구별이 모호하며,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그 의미도 다르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 역시 달라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로서 소득양극화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의 소득양극화 실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한다.

소득양극화는 양극화는 중간계층이 해체되어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내부적으로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호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전체 집단이 집약화한다는 것이다. 즉, 중산층이 소득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는 분배가 골골루 이루어져 전체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소득불평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을 보자. 이는 1,000명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가상의 소득분배 구조를 나타낸다. 여기서 세로축은 소득의 크기이고 가로축은 해당 소득을 받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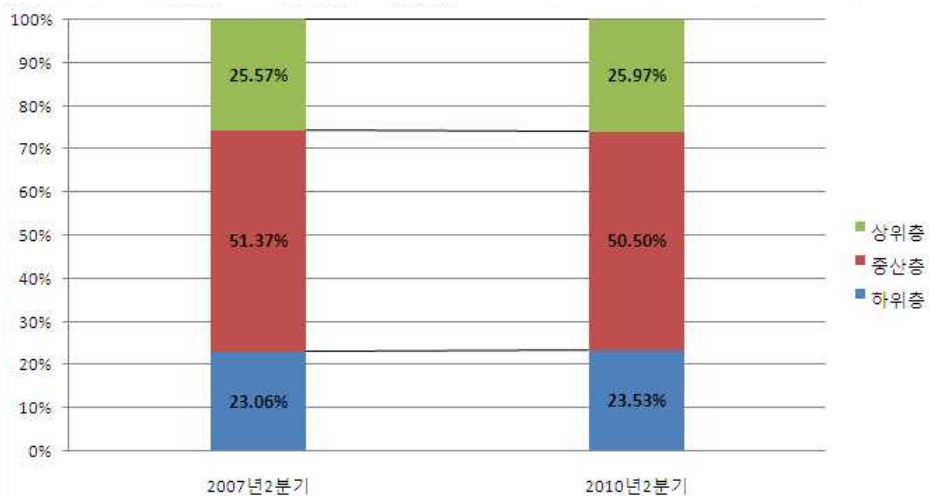
[그림 1] 가상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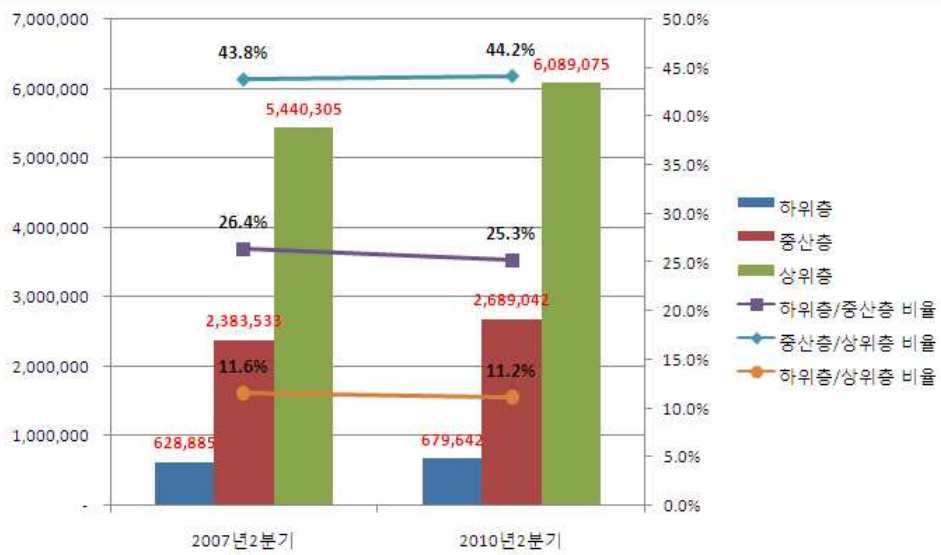
람의 수를 가리킨다. 이 때 좌측 소득구조가 우측 소득구조로 변화한다면 소득양극화는 증가하지만, 로렌즈곡선이나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측정해보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소득양극화의 심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은 같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구분하여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

통계청의 가구동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금융위기 전인 2007년 2분기에 비해 2010년 2분기 중산층이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이동하여 해체되는 두 극점으로서의 동질화가 증가하는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소득계층 사이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이질성 측면의 양극화 역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3] 참조).

[그림 2] 전체 가구 중 소득계층별 비중



[그림 3] 소득계층별 월평균소득



그리고 2010년 2분기 현재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은 소득격차와 함께 소비지출에서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하위층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 수준이 상위층의 12.8%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나아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소득양극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되어왔으며, 심화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그 해결책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

본문

1. 들어가는 글 : 아이들의 꿈까지 양극화되는 시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 후 소득불평등 문제와 함께 소득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산층 붕괴라는 말과 함께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양극화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중산층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시장소득¹⁾ 기준 2006년 60.8% → 2009년 58.7%),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었을 때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은 증가했으나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득은 감소하고 가장 높은 5분위의 소득은 증가해 이들 사이 소득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양극화 심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소득 차이는 가구지출의 차이를 가져오고, 소득이 많은 가구와 소득이 작은 가구 사이 생활양식, 생활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는 현실에서 의식주에서의 양극화로 실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득양극화가 건강양극화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²⁾. 건강에서의 양극화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그렇지 못한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섭취 수준이 부실하고,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적는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소득양극화가 아이들의 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감에서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3만7258명의 장래 희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에서 평균 집값이 가장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가장 낮은 축에 드는 관악·구로·금천구에 있는 초·중·고교의 장래직업 희망을 비교하고 있는데, 초·중·고교 모두에서 강남 3구 학생들이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역 간 사회지도층의 꿈을 가진 학생 비율의 격차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커졌다³⁾. 부모의 부의 양극화, 소득양극화가 아이들의 꿈의 양극화까지도 가져온 것이다.

1)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2)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국감자료(2010년 10월 12일)
 3) 시사인 “꿈도 양극화, 강남 학생 꿈은 의사·비강남은 회사원”, 2010년 10월 18일 참조

본 연구는 이와 같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의 확대와 함께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대해 다룬다. 소득양극화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구별이 모호하며,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이 특정 수준을 중심으로 집약되는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감소를 가리키는 소득양극화는 개념도 다르고 원인과 해법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연구의 토대로서 소득양극화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통계청의 201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재 한국의 소득양극화 실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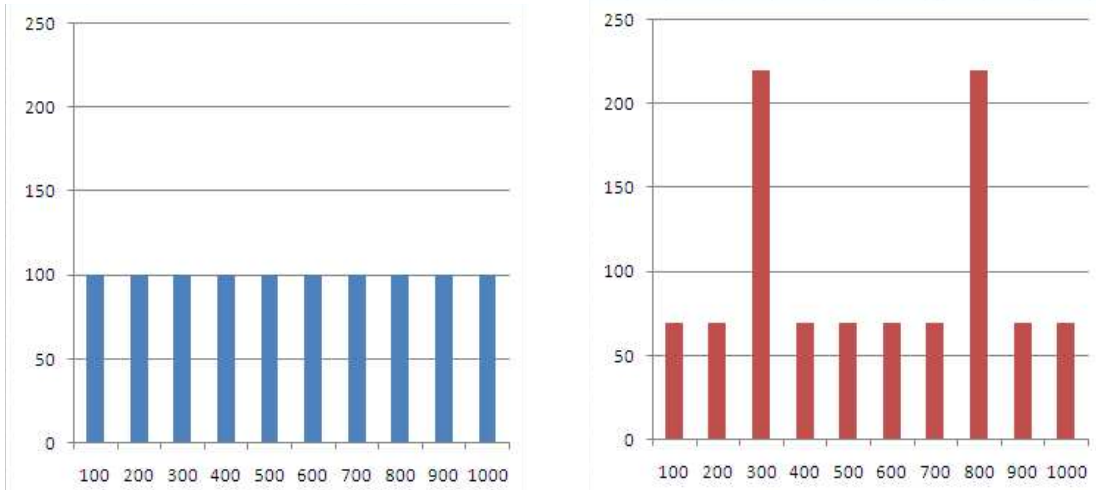
2.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는 중간계층이 해체되어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윤진호, 2006; 김종진·이병훈·강은애·윤정향, 2008). 이는 내부적으로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호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전체 집단이 집약화한다 것으로 소득양극화의 경우 중산층이 소득상위계층과 소득하위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동시에 그들 두 집단 사이의 거리가 커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양극화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하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며,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⁴⁾.

예를 통해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1]은 1,000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두 개의 가상적인 소득분포를 나타낸다. 두 그래프 모두 가로축은 소득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해당 소득을 받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첫 번째 그래프(좌측)는 전체 1,000명의 사람들 중 100만원, 200만원, ..., 1,000만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모두 100명으로 동일한 소득분포를 보이고 있는 경우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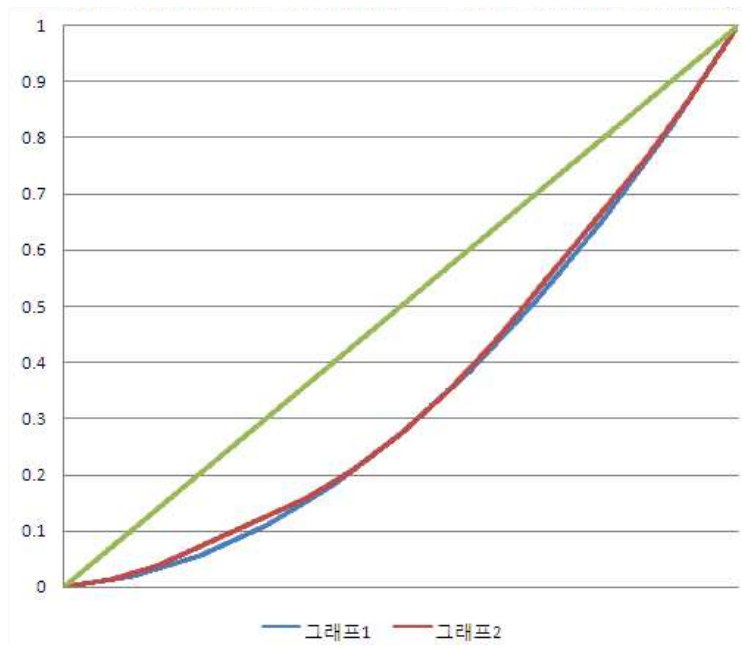
4) 소득불평등은 지니계수나 로렌즈곡선 등을 통해 오래 전부터 측정되어왔으며, Sen이나 Atkinson 등의 학자들에 의해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양극화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고성장과 함께 빈곤계층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양극화를 측정하는 지수에 대한 연구로는 Foster and Wolfson(1992), Esteban and Ray(1994), Esteban, Gardin and Ray(1999), Duclos, Esteban and Ray(2004) 등이 있다.

[그림 1] 가상 소득분포



※ 가로축은 소득을 세로축은 해당소득을 받는 사람 수를 나타낸다.

[그림 2] 로렌츠 곡선



두 번째 그래프(우측)는 동일한 1,000명의 사람이지만 300만원을 받는 사람의 수와 800만원을 받는 사람의 수는 220명이고, 다른 소득을 받는 사람의 수는 각각 70명인 경우이다.

이 때 첫 번째 그래프에서 두 번째 그래프로 소득분포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인구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소득평균 역시 변화가 없다. 그러나 소득양

극화와 소득불평등에 있어서는 변화가 발생하는데, 소득양극화의 경우 300만원과 800만원의 두 극점으로 집중이 일어나 양극화가 더욱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보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략적인 로렌츠 곡선을 그리면 [그림 2]와 같다⁵⁾.

그리고 이를 통해 지니계수를 계산해보면, 소득분포의 변화가 있기 전과 후의 지니계수는 각각 0.30과 0.29로 소득분포의 변화로 인해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불평등도는 완화되었지만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Esteban and Ray(1994)는 양극화가 포함하고 있는 이질화와 동질화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소득양극화는 밀집된 극으로 모인 소득계층 내부에서의 동질화와 양극의 소득계층 간의 외부적 이질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만약 내부적 동질화가 외부적 이질화보다 더 강한 경우, 즉 앞서 살펴본 예와 같이 극점 사이 거리가 증가하기보다 극점에 포함되는 사람의 수가 더 증가하게 되면, 양극화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분배는 더 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득분배는 전체 소득계층의 분배구조문제인 데 반해, 양극화는 중산층 몰락이나 양극으로의 집약화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개념에 있어 차이가 있고, 동일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⁶⁾.

3. 소득분포로 살펴본 양극화 실태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 이러한 양극화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특성은 무엇일까? 기존의 자료나 연구들은 한국의 소득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중산층의 비율은 2006년 64.9%에서 2009년 63.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⁷⁾. 또한 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

5) 로렌츠 곡선을 통해서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45°에 해당하는 직선에 더 가까운 로렌츠 곡선일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다. 두 곡선을 비교해보면 소득분포 변화 뒤 곡선이 45°선에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분포 변화 뒤 소득불평등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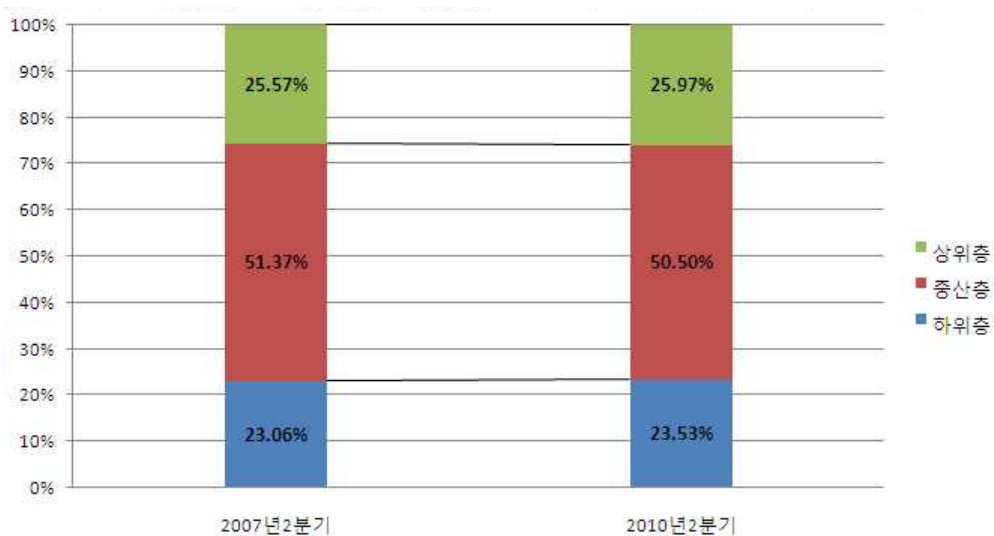
6) 양극화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는 Esteban and Ray(1994), Wolfson(1997), 윤진호(2006), 전병유·김혜원·신동균(2006), 신동균(2006) 등이 있다.

7) 한국일보, 중산층 비율 줄고 소득불평등 심화, 2010년 10월 4일

으로 2003년 60.4%이던 중산층의 비중이 2009년 55.5%로 줄어들어, 지난 6년간 4.9%p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통계청의 경우 통계청 홈페이지 소득분배지표에서 2006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가구의 60.8%이던 중산층 비중이 2009년 58.7%로 2.1%p감소하였으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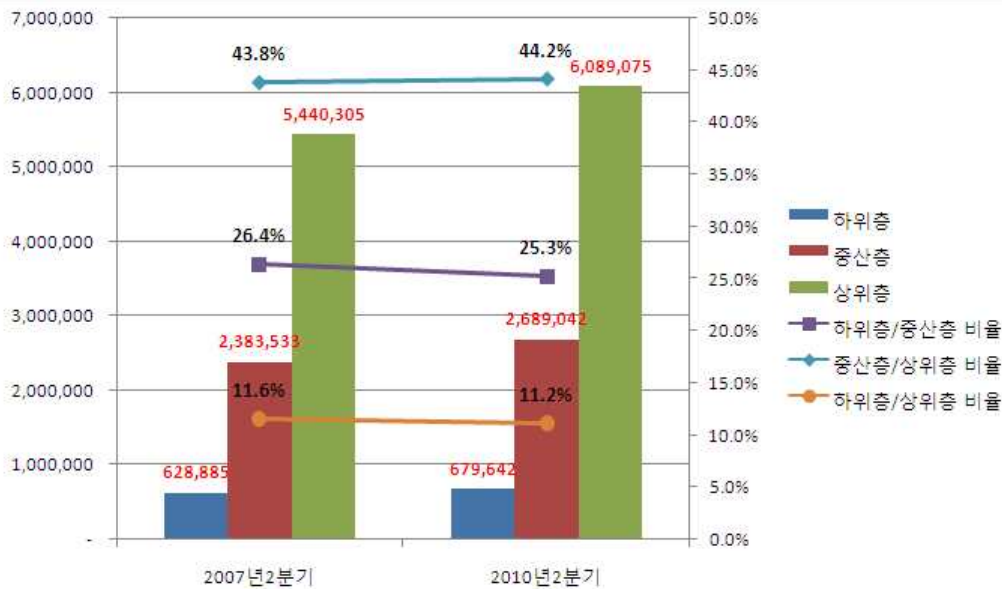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보다 최근의 2010년 현재의 전체 가구의 소득양극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인 이상 전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상위층, 중산층, 소득하위층의 비중을 살펴본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한 결과 이전 자료나 연구와 마찬가지로 양극화의 심화가 관측되었으며 1인가구를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 중산층의 규모는 이전의 결과들보다 훨씬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⁸⁾. [그림 3]은 통계청의 분기별 가구동향조사를 이용해 2010년 2분기 현재 소득수준별 가구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이 때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위기 전인 2007년 2분기를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별 구분은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로 보는 OECD의 중산층, 소득상위층, 소득하위층 구분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소득은 월평균 전체 가구소득을 이용하였다.

[그림 3] 전체 가구 중 소득계층별 비중



8)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분석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글에서는 소득양극화의 분석에 있어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1인 이상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단위가 아닌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데서 발생한다. 그리고 분석기간 역시 차이가 있다.

[그림 4] 소득계층별 월평균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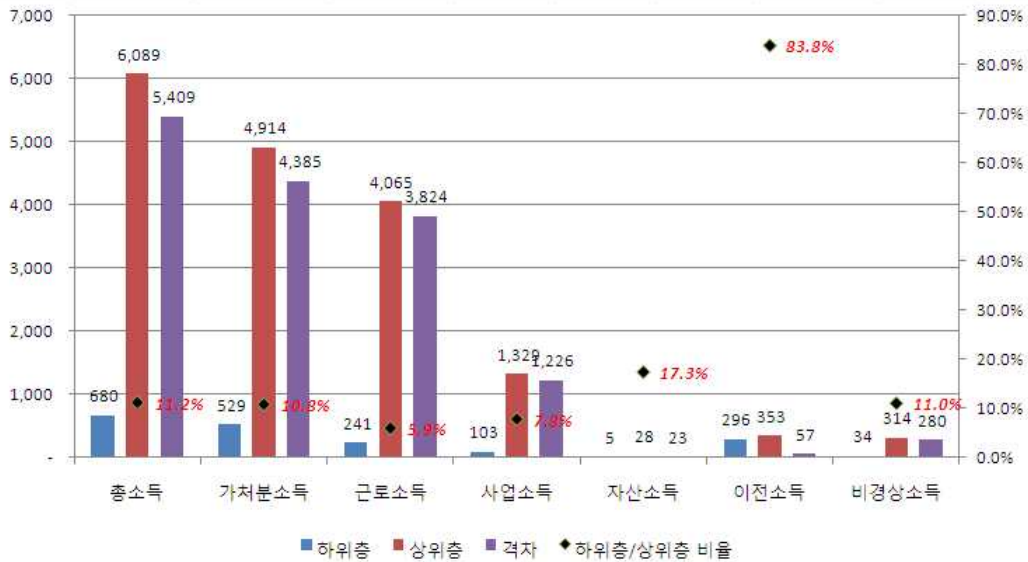
※ 소득의 경우 원단위 좌측 축 참조, 비율의 경우 % 단위 우측 축 참조

이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현재 중산층의 비중은 5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2007년 2분기 51.4%와 비교할 경우 그 비중은 0.9%p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상위층과 하위층이 증가하는 소득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동안 하위층과 상위층의 비중은 각각 0.47%p, 0.40%p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산층 해체 과정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하여 집락화되는 비중이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7년 2분기와 2010년 2분기를 비교해보면, 집락화된 극점에 있는 집단들 사이 이질화 측면에서도 역시 양극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소득하위층, 중산층, 소득상위층의 2005년 2분기와 2010년 2분기 소득계층별 평균 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하위층의 소득은 62만 9천원에서 68만원으로 3년 사이 5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 중산층의 경우 238만 4천원에서 268만 9천원으로 30만 6천원 증가하였고, 상위층은 544만원에서 608만 9천원으로 64만 9천원 증가하였다. 소득하위층의 소득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소득상위층, 중산층에서는 많은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소득상위층과 하위층 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양극화의 심화는 나누어진 두 계층 사이의 분열·갈등을 야기

[그림 5]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비교



※ 소득의 단위는 천원으로 좌측 축 참조, 비율의 단위는 %로 우측 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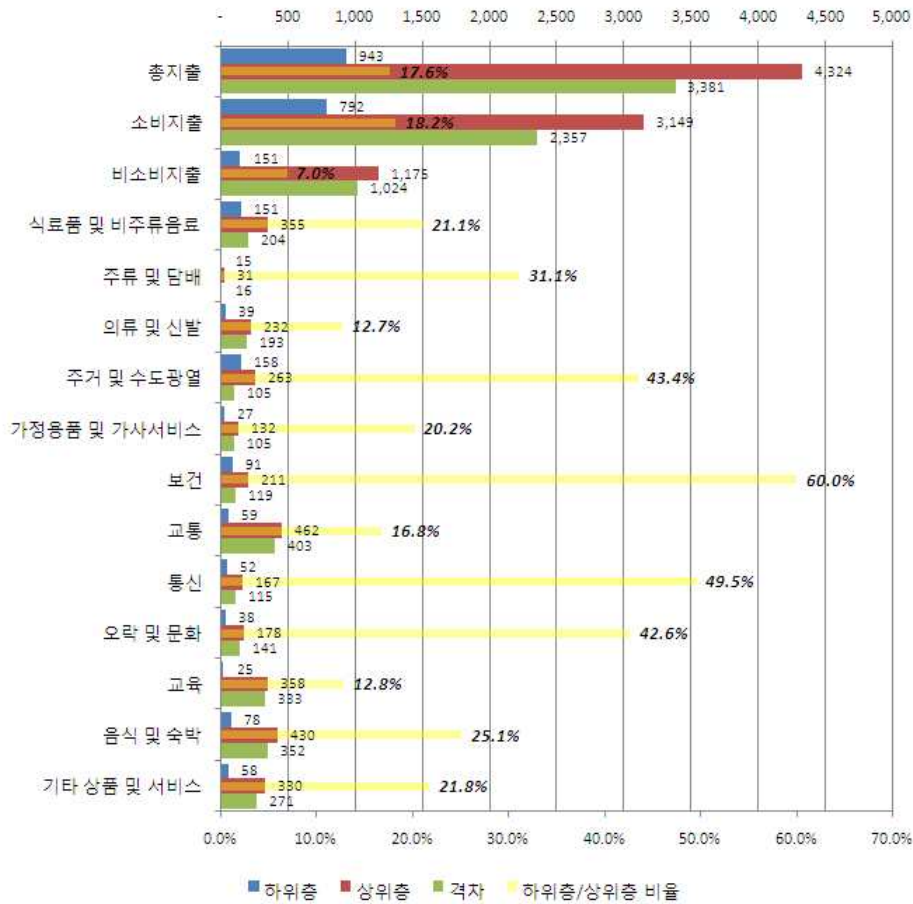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이는 소득상위층과 하위층 사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보듯 2010년 2분기 현재 하위층의 소득은 상위층 소득의 11.2%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득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구조와 규모를 비교한 것이 [그림 5]이다. 이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현재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격차는 540만 9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소득격차가 큰 것은 근로소득에서의 격차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사업소득 역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때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⁹⁾의 경우, 상위층과 하위층 사이 438만 5천원의 격차가 있으며, 하위소득의 가처분소득은 상위소득 가처분소득의 10.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처분소득에서의 큰 차이는 소비지출에 있어서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림 6]은 소득상위층과 하위층 간 소비지출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준다. 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총지출과 소비지출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층의 총지출은 상위층 총지출의 17.6% 밖에 되지 않으며, 두 계층 사이 338만 1천원이라는 지출격차가 존재했다. 이러한 소비지출에서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득양극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에서의 양

9) 여기서 가처분 소득은 “전체소득 - 비소비지출”로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6]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비지출 비교



※ 소비지출의 단위는 천원으로 상단 축 참조, 비율의 단위는 %로 하단 축 참조

극화가 소비에서의 양극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지출의 규모 차이는 두 계층의 생활양식에 있어 양적이나 질적으로 큰 간극이 존재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 문제는 나아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장 큰 소비지출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교육으로 나타났다는데, 소득상위층과 하위층 사이 교육비 지출의 큰 차이는 향후 두 계층 사이의 이동을 막아 양극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소득과 함께 살펴볼 경우, 소득하위층의 경우 가구소득보다 가구지출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에 따르면, 이들은 월평균 68만원을 벌어서 94만 3천원을 지출하고 있다. 월평균 26만 3천원이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셈인데, 이는 이들 소득의 40% 정도나 된다. 즉, 소득하위층의 경우 상위층과 비교할 때 지출수준이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은 적자 가계

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이들은 현실적으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줄 자산축적이 어려우며, 이러한 적자 가계운영이 지속될 경우 자산수준이나 생활수준에 있어 상위층과의 더욱 큰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요약하면, 금융위기 전인 2007년 2분기와 2010년 2분기 현재를 비교할 경우 양극화의 두 측면이라 볼 수 있는 내부적 동질성과 외부적 이질성 모두 과거에 비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2분기를 기준으로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과 소비지출에 있어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위층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위층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소득양극화의 원인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득양극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노동소득 양극화, 노동양극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상위층과 하위층 사이 소득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소득의 격차 때문이다. 이들 사이 총소득 격차 540만 9천원 중 70.7%에 해당하는 406만 5천원의 격차가 노동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득양극화를 분석한 많은 연구자들 역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와 같은 노동소득에 있어서의 격차가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 및 정규직과의 격차 심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 증가 등이 노동자별, 그리고 가구별 노동소득의 격차를 가져왔고, 그것이 소득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절반 조금 못 미치는 49.85%가 비정규직¹⁰⁾ 노동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직장으로 제공받는 정규직과 달리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56만 9천원인 정규직의 월평균 임金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2% 정도인 122만 9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경제위

10) 여기서는 통계청이 아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기 이 후 비정규직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노동소득양극화,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많은 연구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로 인한 노동양극화 역시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되었다.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비중은 11.6%이고,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절반 이상인 58.3%에 달한다. 이 때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24만 5천원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19.1%) 115만 7천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16.7%) 150만 6천원,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22.44%) 185만 8천원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와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동소득에서의 격차 확대를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의 노동양극화, 일자리양극화가 진행되었고, 이것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양질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나쁜 일자리로 일자리가 나뉘고 있으며, 그 둘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노동양극화가 소득양극화의 원인인 것이다.

또한 [그림 6]을 보면, 소득양극화에 있어 노동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2분기 현재 소득상위층과 하위층 사이 사업소득의 격차는 122만 6천원으로, 전체 소득격차의 22.7%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업소득의 차이는 영세·독립자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사용자와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1997년 이후 실업의 증가는 일부 영세·독립자영업자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들 사이 경쟁 격화는 저소득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세·독립자영업에서의 낮은 소득은 사용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전체에 있어 사업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비임금근로자 내에도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같은 양극화가 존재하고 그것이 소득양극화의 원인이 된 것이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서는 직접적인, 주된 요인이라 생각되는 이상에서 말한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되는 세계화의 진전이나, IT 산업의 확대, 내수시장의 약화, 성장속도 저하, 그리고 최근

의 금융위기 등의 요인을 비롯 많은 요인들이 소득양극화의 원인들로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촉발된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의 붕괴, 소비지출양극화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경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5.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소득양극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통계청의 2010년 2분기 가구동향 조사를 중심으로 소득양극화 실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소득양극화는 소득불평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소득불평등이 소득이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라면, 소득양극화는 비슷한 집단으로 얼마나 집락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들 집단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실제 소득양극화의 심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함께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가구동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전인 2007년 2분기에 비해 2010년 2분기 중산층이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이동하여 해체되는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소득계층 사이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이질성 측면의 양극화 역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10년 2분기 현재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은 소득격차와 함께 소비지출에서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하위층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 수준이 상위층의 12.8%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나아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소득양극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되어 왔으며, 심화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그 해결책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 소득양극화의 심화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던 요인들을 바탕으로 소득양극화 심화의 원인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

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진·이병훈·강은애·윤정향 (2008) 양극화 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 김용기·강성원·이동원·박준·문외술·최홍 (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 신동균 (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 윤진호 (2006)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와 정책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
- 전병유·김혜원·신동균 (2006)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 Duclos, J.V., Esteban, J.M. and Ray, D.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 Esteban, J.M. and Gardin, C. and Ray, D. (1999)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Instituto de Analisis Economico Working Paper No. 24.
- Esteban, J.M. and Ray, D.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4).
- Foster, J.E. and Wolfson, M.C. (1992)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Canada and the U.S', OPHI Working Paper No. 31. (rev. 2009).
- Wolfson, M.C. (1997)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4).